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환경 만들겠다”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2025년 신년인사회’

종사자 등 300여명 참석 ‘단단한 복지, 따뜻한 광주’ 다짐 김영기 회장 “견고한 복지체계 구축·나눔 가치 확산 주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따뜻한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통해 광주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21일 오전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광주복지 신년인사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등 300여명이 새해 안부를 기원했다.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단단한 복지, 따뜻한 광주’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 민·관·정이 한데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나눔과 상생 정신을 공유하며 복지환경 강화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영기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안병규 광주사회복지사업회장,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했고 ▲신년하례 ▲국민의례 및 묵념 ▲신년사 ▲축사 ▲기념촬영 ▲떡국 나누기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기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해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광주의 복지체계를 견고히 하고 복지기관 및 구성원과 협력·연대해 나눔 가치를 확산하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연말연초에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복지 가족 여러분들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덕에 마음이 따뜻하다”며 “지난해 사회복지 종사자 호봉제, 건강검진 지원, 유급휴가 등 처우 개선을 잘 마무리한 만큼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합돌봄 정책을 의료 돌봄까지 확장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념 촬영과 사회복지 원로를 비롯한 광주시의회 의원 등 현장 관계자들이 덕담을 나눴고, 떡국을 함께 먹으면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21일 오전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안부를 기원하는 ‘2025년 광주복지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김순자 광주YWCA 제33대 회장 취임



김순자(사진) 광주YWCA 제33대 회장이 21일 취임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광주YWCA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는 이사 및 임원으로 2025년 총회까지 총 22년간 Y에서 헌신 봉사했다.

또한 광주여육원에서 생활복지과장을 역임한 데 이어 아동복지시설 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사 및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란 슬로건 아래 탈핵기후 생명운동,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 운동 등을 펼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복지시설 위문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정선 시교육감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물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남구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소화자매원’을 비롯해 남구 아동복지시설 ‘노들담 형제의 집’, 광산구 ‘바람개비뿔터 공립지역아동센터’, 서구 ‘홀더지역아동센터’ 등 4곳을 찾아 나눔을 실천했다.



“소외된 이웃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 되고파”

권재준 서해해양특수구조대 경위, 해경청 수기 공모전 ‘장려상’ 상금 복지시설 후원 ‘귀감’...28년간 현혈증 400장 이상 기부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 소속 권재준(45·사진) 경위가 해양경찰 수기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2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권 경위는 해양경찰청 주최 ‘해양경찰 고마워요! 부탁해요!’ 수기 공모전에서 구조대원으로서 국민을 구조한 경험을 담은 작품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권 경위는 2010년 해양경찰에 입직해 15년간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백혈병 환아와 소외 아동을 위해 현혈증 기부, 후원, 봉사활동 등 선행을 이어왔다.

특히 그는 28년 동안 400장 이상의 현혈증을 기부하며, 백혈병 협회 홍보대사로서도 활동 중이다. 또한 조혈모세포 및 인체 조직 기증, 시신 기증 등도 등록하며 희귀 질환 환자와 신체 연구 등 사회를 위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다.



권 경위는 소아암 환아를 위한 18년간의 정기후원뿐 아니라, 2021년 ‘LG 의인상’ 수상금 전액 2천만원을 백혈병 환아와 동료 직원 자녀 치료비로 기부했다.

이어 2022년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받은 동상 상금과 성금을 모아 순직 해양경찰 가족을 위해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정목 엠제이팜 회장 ‘초당대 1호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초당대학교는 “최근 김정목 ㈜엠제이팜(MJ Pharm) 회장에게 ‘제1호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정목 회장은 1954년생으로 영암 출신이며, 1991년 제약 유동업을 창업해 엠제이팜, 지엔헬스케어 등 관련 회사 연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국내 굴지의 제약 유동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유공자 후원 물품 전달도 기탁

전남도는 21일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4억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대표 법인으로서 힘든 시기마다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지역 발전에 애써준 것에 늘 감사하다”며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한층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러브유운동본부, 취약계층에 생필품·식료품 전달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이하 위러브유) 광주지역 회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0일 서구청을 방문, 생필품·식료품 30세트를 기탁했다.



음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인류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 챗GPT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챗GPT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AI 기술의 예측 가능성과 자동화 역량을 활용해 공사의 주요 사업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용해동지사협 ‘희망 드림 장학금’ 전달

목포시 용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희망 드림(Dream)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박상희 용해동장은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자리나는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용해동이 되도록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경찰, 설 명절 맞아 청소년 시설 위문

여수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최근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관내 위기 및 가솔 청소년 보호시설을 방문해 생필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여수경찰은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살리기 위해 협력 단체와 연계해 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한 여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